

## 1980년~1988년(안정성숙기)

1970년대의 수차례의 걸친 돼지가격하락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양돈산업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으며, 부업적 양돈과 소규모 양돈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전업 및 대규모 양돈이 증가하여 사양기술 및 시설현대화 과제가 표면화되었으며, 크게는 자금자족적 양돈시책이 세계무대에 올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 ◆ 종돈개량

종돈의 공급은 종래의 관(官)주도적 체계로는 늘어나는 종돈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따라서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종돈의 수입정책은 단계적으로 볼 때 1986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외국의 혈통등록된 종돈으로서 국내 양돈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1983년도에는 무려 2,000여두를 수입허용하여 양돈농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는 바, 이때의 수입농장은 대체적으로 자금능력이 있고 개량의 전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양돈업체들이었다. 이 무렵 소수의 하이브리드돈이 수입되었으나 국내에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이후 이를 계기로 종돈개량 체제를 단계적으로 정립하는 단계를 맞게 되었다.

양돈개량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돈개량 의욕을 높이고자 국내 최초로 대한양돈협회 소속하에 '종돈능력검정소'를 설치(축산진흥기금 530,000만원 보조)하고 1984년부터 검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신호로 국내 종돈 개량분위기는 날로 고조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 양돈산업은 돼지고기 수출로까지 연계되어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1984년도에는 개정축산법에 따라 양돈업 등록 허가제가 실시되는 한편 종돈업도 등록제를 신설하고 종축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농림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돈개량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1987년부터는 수입종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돈수입요령을 정립하고 연간 1,000두 이내에서 종모돈의 경우에는 반드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며 종빈돈의 경우에는 능력검정을 받은 것이거나 최소 3대 이상의 계대등록이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종돈도 반드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을 필하여 이동상황판단이 가능토록 하였다.

1987년부터 착수하기 시작한 농장검정사업과 돼지 계통조성사업은 종돈개량 역사를 전환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출처 : 한국축산연감 1989~90 농수축산신문)